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몇 년 전 대학 은사님의 칠순 파티가 있다고 해서, 비록 은사님이 애써 가르쳐 주신 전공 공부는 진작에 포기 해 버리고 딴 길로 새어 버린 불충 제자였지만, 오랜만에 모임에 참가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동문 선�후배 들은 무척 반가웠다. 아침 나절 다투었다가 저녁 나절 히 히덕거리던 철학사니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 옛날 나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든, 중견을 넘어 원로를 향해 달려가는 과학자들이 되어 있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느냐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 서로 놀라움이 담긴 헛웃음만 연발했는데, 더욱 놀라웠던 건 은사님의 변화였다. 은사님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3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지셨는데,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고백하셨다.

“햄버거를 먹던 모태야. 말할 놈의 키오스크 때문 에.”

우리 실험 데이터의 허점을 매섭게 추궁하시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능숙하게 폭소를 자아내시던 그분의 유머 감각이 여전했다. 우리는 배꼽을 쥐고 웃 으면서도 세월의 무서움에 고개를 내저었다. 영어를 모

키오스크 앞에서

국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하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연구 업적을 쌓았으며 20대 유학 시절부터 미국 본토 햄버거 문화를 즐겨온 은사님이 그ذاك 자동 주문 키오스크의 빛 나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어 어쩔 줄 모르는 어르신 중 의 한 명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모 대학 의 문학 기행에 참가해 멋진 하루를 보냈다. 문학 명소를 찾아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멋진 사 진들을 찍었다. 말할 것도 없이, SNS로 단련된 젊은이 들의 사진 실력은 놀라웠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 을 찍었는데 내 사진과 그들의 사진은 감성과 시아의 차원이 달랐다. 직적인 내 사진 말고 화사한 그들의 사 진을 갖고 싶어진 나는 그들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고 사진을 받을 생각을 하며 머리를 복잡하게 굴렸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작가님, 이리 오세요.”

내 휴대폰에 그들의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무언가 가 뵈한 보내기를 누르니 연락처를 몰라도 금세 사진이 도 착했다. 실은 그런 현대적인 보내기 수단을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나는 찢찢했는데, 젊은 손가락들이 내 휴대폰 설정 화면을 몇 번 터치하니가 수십 장의 사 진이 고스란히 내 폰에 도착했다. 사진을 받는 동안 나 는, 휴대폰을 어색하게 내밀고 황망한 표정으로 안경을 만지작거리는데 대한민국 표준 어르신의 포즈를 성실하 게 완수했다. 그때 내 얼굴은 키오스크 앞 은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화들을 이제 나는 수십 개나 딸 수 있다. 처음

에는 인기 있는 티케팅에 도전할 때 번개같이 빠른 딸 의 손을 빌리는 것에서 시작했으나 점차 나는 휴대폰 자체의 기능과 각종 앱의 활용성을 묻기 위해 젊은이들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심지어 매일 일상적으로 쓴다 고 생각하는 메신저 앱에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수십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메신저 앱의 검색 기능을 안다면 괜찮은 축에 속한다. 우리는 일상적인 안부와 사진, 동영상, 웃긴 짤 정도를 주고받 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다가, 어느 날 작심하고 ‘요 새 문물’에 익숙한 한 친구에게 강의 삼아 이런저런 기 능들을 배웠다.

“난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지. 젊은 애들이 매일 가르 쳐 주거든.”

중견 교수인 그는 젊은 제자들에게 배운 것들을 우리 에게 전수해 주었다. 우리는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 며 첨단기술을 열심히 배웠다.

세월은 인간에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이제 는 나 이 든 사람이 젊은이에게 숨기듯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배울 생각이 없고 여전히 호통치고 가르치려 들 면 우리만 손해다. 사자성어를 모르는 2030보다 손안의 매일 쓰는 기계를 망연하게 쳐다보는 우리가 더 큰일이 다. 젊은 우리 스승님들은 어쩌면 ‘학이시습지 불역열 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경구를 모르실 텐데, 그렇다고 쫓겨가 버린다면 반전을 겪어볼 만하다. 더 이상 2030이 아닌 우리는 먼저 그분들께 다가가고, 감사히 배우고, 배운 것을 기쁘게 때때로 연습해야 한다. 그것 이 평생 배워야 하는 이 시대의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종교칼럼

기쁨을 주는 정화(淨化)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죄를 지어놓고도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며 도리 에 적박하장으로 공격하려 달려드는 경우들을 종종 본 다. 화를 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폭력과는 같은 강압적인 태도도 보이는데 상대를 꺾지 못하게 하고 본 짚을 흐리려는 목적이다. 이런 공격적인 폭력은 그 죄 를 거짓으로 덧칠하여 훌륭한 가면으로 작용하게 된 다. 탐욕과 사악함으로 탄생한 죄는 감추어야 하고, 반 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들리지 말아야 하는 추악한 자기 속내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짓과 핏수 그리고 고 착되어 굳어 버린 얼굴과 태도는 상대를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죄가 있는 자신보다 더 못한 존재로 치부 해 버린다.

이러한 모습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어리석 고 한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탐욕과 사악함으로 뿔 뿔 뿔 뿔 것이 최근 청문회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 지고 있다. 속 시원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지!’라는 말이 생각난 다. 우리에게 통용된 상식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상 황도 목격된다. 그래서 공사·경중·선후·원급의 구분도 없이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오염되어 혼란스러워졌다. 우리는 동등한 존 재로 태어났지만, 이제 철저히 분리가 되어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린 차별된 사회에 살고 있다. 분리의 기준은 바로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다.’이다. 내 편이 아 니니 서로의 존재를 차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 기득권자들은 민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막아 버렸다. 예수가 당 시 기득권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다. 루카 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의 “정녕 너희 바리 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 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이야,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드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 으로 자신을 배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 이다.”라는 말씀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예수가 당신의 말과 행동으 로 보여주신 인간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의 존재이며, 기쁨의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 랑과 나눔과 희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삶의 참된 길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

쁘지 못한 것이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 은 것일까? 때론 죄수처럼 발목에 쇠사슬을 질질 끌고 가는 애잔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단지 고달픈 고통 과 번민만 있는 것인가?

필자에게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돕는 책 이 있다. 칠레 선교사 시절 구입했던 스페인어 판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 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걸으셨던 여정에 동 반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렉시오 디비나’ 8권에서 루카 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 리하고 있다.

‘복음적 정화의 원칙은 착취와 사악함을 낫는 탐욕과 이기심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는 권고이며,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더라도 탐욕과 사악 함에 의한 것이라면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그런데 그 탐욕과 사악함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것인데, 그것으 로 자신을 행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야 정화가 이루어지 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움에 내 인정을 잃고 목숨을 걸고, 방해된다면 폭력적인 공격 으 로 지키려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더러움을 씻기 가 어려운가? 기쁨의 삶이 왜 어려운가?

社說

현실성 낮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책 보완해야

정부가 세계 1위의 선박 수주량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 지의 인력난에도 승용이 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은 원·하청 하도급 구 조 개선, 인력난 해소,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조선 업의 이중 구조 개선이다. 이중 구조는 원 ·하청업체 간 근로 조건 임금 체계가 확연 히 다른 것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 고 있다.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또 다른 하청 업체에 물량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50~70%에 그치는 반면, 연평균 근로 일 수는 원청 180일, 하청은 270일에 달한 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보다 많이 일하

면서도 임금은 훨씬 덜 받으니 이탈이 심 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 조선업계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대규 모 인력 이탈로 인해 근로자 수는 2015년 20만 3000명에서 지난해 9만 3000명으 로 줄었다.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대불산단은 상황이 더 심각해 하 청업체들이 물량을 반납할 정도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대책 의 방침이 ‘자율’에 쩌어져 있다는 점이다. 원·하청이 스스로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실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다. 하지만 고착화된 이중 구조를 개선 하기에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 부의 역할도 애매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단계 하 도급의 구조적 문제부터 면밀히 파악해 이를 해소할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느끼는 신규 확진자 ‘트윈데믹’ 대비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 주일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데 이어 광주 지역 일평균 확진자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 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지난 18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3248명으로 집계됐 다. 이는 1주 전인 지난 11일(1만 5476 명)의 2.14배 규모이다. 광주 지역의 최 근 5일간 일평균 확진자도 544.4명으로 지난주보다 35.2% 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역시 38.9명으로 13일(31.8명)과 비교해 22.3% 늘면서,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60대 이상 확진율도 7월 13.2%에서 8 월 21.8%, 9월 23.1%, 10월 24.9% 등으 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변수다. 우세종이었던 BA.5 검출

률은 감소세지만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 향이 더 강한 BA.2.75, BF.7 변이 등은 전주보다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달 말보다 44.8% 증가했다.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소아 계층에서 계절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 의로 대응 체계를 개편, 신속한 치료를 지 원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는 밀집·밀집·밀폐의 ‘3밀’ 환 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때보 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진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 본 방역 수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 울러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과 이번 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 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이다.

無等鼓

“이번 오프 시즌에는 한국에 가서 흥어를 꼭 먹어보고 싶다.” 이 말의 주인공은 놀랍 게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 런왕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다.

저지는 지난 5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 서 시즌 62호 홈런을 쳤다. 1961년 로저 매리스가 세운 아메리칸리그 한 시즌 최 다홈런(61개)을 무려 6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친 선수는 배리 본즈(73개), 마크 맥과이어 (70개), 세미 소사(66개) 3명뿐이다. 이 들은 모두 내셔널리그 소속이고, 또한 금지 약 물의 도움을 받은 ‘약물 홈런왕’이다. 저지는 도

런 소감을 남겼다. “저는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지는 형 존과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 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실력 못지않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그는 박효준 등 양키스를 거쳐 간 한국인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저지는 올해 초 한국 유튜브와 인터 뷰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 난 형이 가장 똑똑하다. 5개 국어를 하며 UC버클리대를 졸업했다. 시즌이 끝나면 한국에 가서 영어 강사 로 일하고 있는 형과 함 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다”며 한국 방

홈런왕과 흥어

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MLB 한국 투어’가 열린다. 팬들은 한국에서 저지의 홈런 세리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는 지금 포스트시즌을 치르고 있고, 4억 달 러에 이르는 FA 계약을 앞두고 있어 투 어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키 201 cm에 몸무게 128kg의 ‘거인’ 저지가 한 국을 방문해 흥어를 먹는다면 어떤 맛을 느낄지 궁금하다.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기 고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 정책 반대한다



장은영 전남도의회 의원

최근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교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행정안 전부·교육부는 전국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약 3000여 명 줄인 인원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 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전남 교사 정원을 총동 50 명, 중동 279명 감축한다고 통보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시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이 방역과 학 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효 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교육의 질 마저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학급 수 증가 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

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통보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3~7개 학급 규모 176개교 중·고등학교의 교원 수를 줄 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도내 고등학교 22%, 중학교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교원 정원이 줄어 정규 교 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충원 하고있는데 전국적으로는 6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전 남 지역만 해도 10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순회 겸임 교사도 기간제 교사가 맡고 고 교학점제 연구 사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도 기간제 교사가 맡는 썩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같이 열악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교대·사대생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우수한 교사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은 자명하다.

더 큰 문제는 교원 정원 감축이 내년으로 끝나지 않 는다는 점이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 교 교육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지역 소멸 위 기 지역의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규 교원을 확충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 미

래 인재 육성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교육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전남의 인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하고, 신·구 교원의 수를 늘려 지역의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경제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 교육의 질을 보장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울골은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상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러 한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 모두가 환영하 는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게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공 교육은 경제 논리라면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교 육은 한 번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교육 주체와 전문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큰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현 교육부의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 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를 중심 으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공교 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 쳐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